『기독교사회윤리』 제49집
(2021) 9~38

포스트코로나와 공동체 윤리

- 타자의 윤리와 배려의 윤리를 중심으로

김광연(숭실대학교, 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팬데믹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

I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타자의 윤리와 공동체 윤리
1. 잃어버린 얼굴과 타자의 윤리
2. 공적 이기주의와 배려의 윤리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완성: 공동체의 남은 과제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49.01

* 주저자, 3pkim@hanmail.net

www.kci.go.kr

• ABSTRACT •

Post-Corona and Community Ethic: Focusing on the ethics of others and the ethics of care

Kim, Gwang-yeon (Research Faculty, Soongsil University)

Living in the post-corona age, We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o the duty of the community. Due to the collective infection caused by the corona19, our society had to try to prevent individual breakaway. Fortunately, our society is doing its best to respond to the Corona19 virus due to citizens' cooperation and a sense of community.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the people are striving for quarantine, group infections are continuing one after another due to egoism that considers only their own interests. Therefore, in the post-corona era, we need an ethic of caring for others rather than a sense of duty or act according to the cause. Understanding the lives of others and caring for them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the Corona 19 age. Also, we need an attitude for the common good to overcome the fear of the virus.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void false egoism and practice the virtue for community order. In the post-corona era, rather than acting to avoid other people's gaze or legal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voluntarily consider others for the common good, take care of others, and take initiative. Accordingly, this article talks about criticism and reflection on false egoism behavior in the post-corona age, and the virtue ethics of the community and the ethics of others.

Key words: COVID-19(Corona19), Post Corona, Egoism, Common good, Community Ethic, Ethic of Care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라 불리는 페스트(pest)는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당시 사람들은 대재난으로 인한 충격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그들은 재난을 피해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하는 것 외에 어떠한 대비를 할 수 없었다. 흑사병이 휩쓸고 간 도시들의 피해는 측정할 수 없었다. 당시 과학(의학)의 기술로는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때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종교적인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이 병의 원인과 치료는 불가능했다. 당시 유럽 가톨릭은 전염병을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말하기 까지 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나쁜 공기가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믿고 신선한 허브 향기를 치료제로 여기기까지 했다.[1] 사람들은 전염병의 원인을 악마의 소행이라고까지 말하고 온갖 소문들이 퍼지면서 흉흉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중세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서서히 바이러스나 전염병과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인류는 전염병이나 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응력을 점점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류는 매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창궐로 인해 팬데믹(pandemic)[2]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을 선언하고 모든 국가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1) 김명자, 『팬데믹과 문명』 (서울: 도서출판 까치, 2020), 148-149.

2) 팬데믹(pandemic)의 팬(pan)은 모두(all), 데믹(demic)은 그리스어로 사람(deoms)을 뜻한다.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퍼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뜻한다. 달리 팬데믹은 "대다수 사람들이 면역체계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된 상태"를 말한다. 김명자, 『팬데믹과 문명』, 19.

www.kci.go.kr

우리 국민들의 대처하는 수준은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는 명성을 얻을 만큼 차분하게 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past corona)[3]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방역수칙 준수를 비롯해서 공동체 의식이 절실한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의무감이나 당위성에 부합되는 도덕적 행위를 하기 보다는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공공선에 부합되는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 단순히 '마땅해 지켜야 할 당위'에 따른 행위 보다는 타자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솔선수범과 방역 준수 등의 덕스러운 행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이 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릇된 이기적 행동에 대한 비판과 성찰 그리고 공동체의 덕윤리와 타자의 윤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팬데믹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

과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발열을 동반하고 기침과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메르스로 인해 사람들이 예방 차원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메르스는 타인의 침이나 콧물의 체액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재치기를 할 때도 소매로 감싸고 주위를 살펴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초기에 마스크 전쟁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마스크 수요와 공급 사태를 불러 일으켰지만 환자와 의료인 등 마스크를 써서 침방울로

3) 포스트코로나(post-corona)에서 포스트(post)는 '탈' 또는 '~이후'로 나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논자는 이 글에서 후기(~이후)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포스트코로나는 후기코로나를 말하며, 이 글에서 포스트코로나는 코로나 이후의 여러 변화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www.kci.go.kr

인한 감염 전파를 막아야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4] 한 때는 마스크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정부는 공적 마스크 구매제를 실시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후 국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면서 공적 마스크 분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시민들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구매할 수 있는 날짜에 맞게 약국이나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공급물량은 5부제 시행 이전 주보다 대략 1천506만장 이상 늘었다.[5] 지난 메르스와 사스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이미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을 COVID-19(Coronavirus Disease-19, 코비드-19)라고 불렀다. 국내에서도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생겼다. 초기부터 그 전파속도는 너무 빨라서 감염 속도를 늦추기에는 해외로부터 국내 입국 통제라는 방역 조치 이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6]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의 전염 위기 사태에 봉착했다. 대구와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종교 단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다. 코로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면서 사람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원하지 않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뿐만 아니라 더욱 고민에 빠지는 것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1인 가족에서 생겨난다. 타인을 접할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온라인이나 비대면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타자와의 관계에서 대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심리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7]

---

4) 김명자, 『팬데믹과 문명』 (서울: 도서출판 까치, 2020), 52-53.

5) "마스크 5부제 1주일간 1천913만명 공적 마스크 구매", 연합뉴스, 2020년 3월 16일자 기사.

6) 김명자, 『팬데믹과 문명』, 14-15

www.kci.go.kr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지속되는 외로움은 뇌 구조를 변화시키고 정서적이고 사회적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은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에 학교생활에서 배우는 것들을 놓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 뇌의 발달을 위해 다양한 자극이 필수적인데 이 자극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 고립으로 인한 지루함과 우울감의 지속 등 또래 친구들과의 대면은 줄어들고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8)]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코로나 우울증'에 대해 관대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은이 교수(기초과학연구원 뇌질환 연구단 위원)는 "치료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과 119 대원 등 수고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관심과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코로나 우울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지속적인 소통과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격리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9)]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WHO는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선포하고 국제대회인 올림픽이 취소되는 등 지구촌 곳곳에서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 침제는 단기화가 아닌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결국은 세계 경제의 증시는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블룸버거(bloomberg)가 발표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백신개발은 몇몇 국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

7) 이은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우울", 기초과학연구원 편집,『코로나 사이언스』(서울: 동아시아, 2020), 163.
8) 고규경 외 16인,『코로나 사이언스』(서울: 동아시아, 2020), 164-166
9) 고규경 외 16인,『코로나 사이언스』, 165-166.
10) 이경상,『코로나 이후의 미래』(서울: 중원문화, 2020), 31-32.

www.kci.go.kr

서는 이미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백신 공급을 약속받아서 곧 국민들에게 백신이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프로젝트로 알려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화이자 백신 가운데 약 6만명분(11만7천 도스)이 이달 중순 이후 들어온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가(AZ) 백신은 상반기 중 220만명분(440만 도스)이 공급될 예정이다.[11]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최고의 역점으로 두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한계 상황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방역 전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의료 종사자들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그릇된 이기주의와 의료지식의 무지 때문이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영원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전파력을 막는 것 외에는 특단의 초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거리두기 시행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인주의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이탈로 인해 바이러스 전염에 노출된 사회에서 우리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의 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이탈자들에 의해 생긴 사회적 혼란은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아있다. 충북 음성군에서 서울로 이송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이탈해서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소동이 있었다. A씨는 감염자 37명이 집단으로 발생한 소망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로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12] 그의 이탈은 단순히 개인의 이탈로 끝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11) "코로나 백신접종 이달 중순이후 본격화…고령층 AZ백신 접종할 듯", 연합뉴스, 2021년 2월 2일자 기사.

12) "서울서 도주한 음성소망병원 확진자 청주서 붙잡혀", 연합뉴스, 2020년 12월 20일자 기사.

www.kci.go.kr

서 일부 이탈 행위로 인해 집단감염이 현실로 등장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는 종교시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집단 발병의 진원지로 인식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대면 금지를 실시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단체 식사를 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진을 초래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세대에게 개인의 이탈은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끼친다. 개인이 혼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는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 아래층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층간소음은 공동체에서 개인의 지나친 이탈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코로나19시대에 일부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탈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피해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 일부 개인의 이탈이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코로나19의 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우리에게 더욱 개인이나 소수 공동체의 이탈을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공동의 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I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타자의 윤리와 공동체 윤리

1. 잃어버린 얼굴과 타자의 윤리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시행정책에 따라 대면에서 비대면 시스템으로 바뀐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고, 회사나 공기업에서는 재택 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일부 콜센터에서의 확진으로 당시 재택근무가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점점 비대면 사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그 동안 타자에 대한 가치와

www.kci.go.kr

소중함에 대한 이해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사회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오늘날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온라인으로 일상을 대체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는 타자와의 단절을 더욱 부추구기고 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타자와 배려의 윤리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레비나스(E. Lévinas)는 타자 곧 나의 얼굴에 비친 타인의 얼굴에 주목한다. 그는 타자에 비친 창백한 얼굴이 주는 의미를 남달리 제시하고 있다. 그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나오는 궁핍함에 대해 호소한다.[13] 그는 타자에서 비춰진 얼굴은 개인의 얼굴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얼굴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공동체가 타자에 응답하는 주체들이 되어야 하고 타자와 함께 하는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4] 타자의 얼굴에서 보이는 벌거벗음은 옷의 부재라기보다는 오히려 형식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15] 타자는 옷을 입고 있다. 다만 그의 벌거벗음은 옷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형식의 틀에서 벗어난 고독인 것이다. 타자가 공동체와 동떨어져 있는 고독이나 아픔에 있을 때 우리가 다가가야 할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필립 네오(Philippe Nemo)와의 〈타인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타자가 나를 보는 순간, 그에 대한 책임을 (당장) 져야 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타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16]고 말한다. 강영안(2006)은 "타자의 얼굴에서 오는 메시지(능동적

13) 박치완,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적 해석이 가능한가?," 「범한철학」 64(2012), 179-180.

14)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 모험'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194.

15) Emmanuel Levinas, *DE LEXISTENCE A LEXISTANT*,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11), 84-85.

16) Emmanuel Levinas, *Etbique et Infini* 김동규 역, 『윤리와 무한(필립 네모와의 대화)』 (서울: 에라스무스 총서, 2020), 108-109.

www.kci.go.kr

힘)는 상처받을 가능성과 무저항성에 근거한다"고 말한다.[17] 레비나스가 말한 무저항은 단순히 타자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동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바라보는 내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요구이다.[18] 성신형(2015)은 타자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응답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존재라고 말한다.[19]

레비나스는 우리 스스로가 타인의 얼굴에 다가서는 것 자체가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타자의 얼굴은 어디쯤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타자의 얼굴에서 나오는 궁핍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연구원은 '2021년도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정책과제'에서 코로나 사태 기간에 경제성장률 전망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취업자는 34만3000명(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7.8%)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해 내수 시장과 소비의 부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경기가 위축되면서 자영자들의 경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21]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속출하고 있고 우리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사태로 접어들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레비나스는 우리에게 타자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나약함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한다.[22]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변에서 보여지는 창백한 얼굴은 나와 우리(사회)의 책임을 수

17) 강영안,『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148-149.
18) 강영안,『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149.
19)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 모험'에 한 연구," 197.
20) 성신형,『틸리히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대화』(서울: 한들출판사, 2018), 63.
21) "코로나1년,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폐업", 뉴스 1, 2021년 1월 18일자 기사.
22) Emmanuel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8). 88.

www.kci.go.kr

반한다. 레비나스는 자아의 자율성을 토대로 타자의 우선권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타자의 얼굴의 형태에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언급한다.[2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위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비록 우리가 타자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없고 타자의 고통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고통은 공동체 책임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24] 얼굴로서 나타나는 타인은 아무런 의존함 없이 얼굴 그 자체로서 윤리적 호소를 요청한다. 타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윤리적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가 타자에 대한 윤리적 응답은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다.[25]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윤리는 타자에 대한 배려의 윤리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눈부신 것은 국민의 협동과 참여였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시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마스크 5부제를 잘 지켜주었다. 외신들도 우리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질서 있게 마스크 5부제를 지키는 것에 대해 주목했다.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사재기 하지 않고 마스크와 식료품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배려의 윤리를 잘 지켜 나간 것이다.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행위중심의 윤리가 지배적이었다. 대표적으로 칸트(I.Kant)는 의무론을 강조하면서 당위나 명령에 따른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행위중심의 윤리는 동정심이나 타인의 존중,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라고 하는 등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인간의 정신적 본성이나

23)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서울: 북코리아, 2010), 84-85.
24)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84-85.
25)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과 탈현대윤리학," 「철학논총」 23(2001), 42-43.

www.kci.go.kr

성질에서 나오는 도덕적 행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26]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의무나 행위의 결과보다는 덕을 강조한 사회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남을 배려하고 공공선을 위한 개인의 높은 차원의 윤리적 삶이 요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순히 의무감이나 법적인 제도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보다는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의 선행과 타인의 배려가 더욱 소중한 사회가 된 것이다.

2. 공적 이기주의와 배려의 윤리

이기주의(egoism)[27]는 개별적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상태에 관한 이론으로서 항상 자신의 행위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케나(W.Frankena)는 이기주의를 한 행위가 옳을 필요 충분 조건은 그 행위가 오직 자신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28]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말할 때 자기중심적 행위와 혼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기주의는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행할 도덕적 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29] 자신의 이익이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오히려 공동체를 위한 행위와 연결이 가능하다.[30]

---

26) Louis P. Poiman & Fieser, *Ethics,* 209.

27) 이기주의는 심리학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로 구분된다. 전자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 일종의 심리학적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는 "인간이 왜 이기적인 존재인가?"에 대해 심리학적 근거를 두고 설명하다. 이에 반해 후자는 "인간은 마땅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일종의 윤리적 주장을 일컫는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옳은 것이라고 말한다. 윤리학적 이기주의는 개인의 기본적인 의무는 자신에게 있어 악을 뺀 가능한 선을 도모하는 것을 근거로 둔다. William K, Frankena, *Ethics,* 황경식 역,『윤리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3), 49-53.

28) Fred, Feldman, *Introductory ethics,* 박은진 · 장동익 역,『기초윤리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129 재인용.

29) Fred, Feldman, *Introductory ethics,* 129.

www.kci.go.kr

밀(J.S. Mill)은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없이 조잡한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야비한 개별성(individuality)이라고 말했다[31] (*Utilitarianism*, 61). 그는 그릇된 공리는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에 급급한 형태라고 보고 이기주의적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이들을 비판했다.[32] 밀은 이기주의를 공적인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이기주의가 공동체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고 야비한 개별성에 대해 비판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밀이 비판한 야비한 개별성에 대한 성찰이 절실하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를 택한 것은 행복에 넘친 악한 사람, 자신만 생각하는 야비한 개별성에 노출된 사람보다는 불만족하지만 선한 사람이 낫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33] 그는 쾌락주의 즉 개인의 만족이나 쾌락에 우선순위를 둔 돼지의 철학을 비판하고 만족하지 못한 소크라테스의 손을 붙들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기주의적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목격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의 편리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심지어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지적하면 폭행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개인의 이탈은 자칫 이기주의에 형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야비한 개별성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기주의라고 해서 모든 이기적 행위가 공동체에 위

30) Fred, Feldman, *Introductory ethics,* 138.

31) J. S. Mill, *Utilitarianism*. ed.,Roger Cris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61.

32) West, Henry R. *Mill's Utilitarianism,* 김성호 역, 『밀의 공리주의 입문』 (서울: 서광사, 2015), 45.

33) Louis P. Poiman · Fieser, *Ethics,* 박찬구 외 4인 역, 『윤리학』 (서울: 도서출판 울력, 2001), 170.

www.kci.go.kr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열정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거나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이지만 이러한 욕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미덕과 악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덕이란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는 욕구로 인해 선의의 경쟁심이 생산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공공선을 위해 노력하는 욕망을 말한다. 이러한 미덕은 차이의 열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서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차원이 야망으로 치우쳐 남들을 지배하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34]

차이에 대한 열정, 즉 타자와 다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자신의 꿈이나 열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행위가 전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율배반적이지만 누구나 자신의 소중한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때론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최우선시 하는 과정이 오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타자와 구별되거나 타인을 앞지르는 행위가 결코 그릇된 이기주의라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열정과 꿈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은 자칫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그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의학적 기술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적할 것은 공동체에서 차이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긍정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만 생각하고 공공의 선과는 거리가 먼 야비한 개별성으로서의 이기심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공적인 가치나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이를 추구하는 가운데 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

34) 김선욱,『행복의 철학』(서울: 도서출판 길, 2011), 58-59.

www.kci.go.kr

하다.[35] 공공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개인의 편리함에만 익숙한 나머지 공공선에 부합되지 않거나 이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 비판과 성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칙이 기본이 되는 도덕적 제재에 대해 익숙해 있다.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 공익(공리)을 따지거나 또는 의무에 입각해서 행위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적 재제(internal sanctions)를 가져야 한다면,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도덕이 아닐까? 도덕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 의무나 원칙들을 제시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실천 규칙이나 그것을 수정하기에 앞서 내면에 어떤 성품을 계발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는 내면적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36]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도덕은 일정한 원칙이나 조건부의 의무 원칙들만이 아니라 도덕적 성품과 관련된 '품성의 도덕'이 필요하다. 품성의 도덕은 '이렇게 행하기'보다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형식으로서 베풀려는 성향(선의)나 동등하게 남을 배려하고 대우하려는 성향(정의로운 성품)을 말한다.[37]

하트랜드 스완(J. Hartland Swann)은 "이웃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여전히 이웃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에게는 일련의 관습이나 전통이 존재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38] 그는 모든 사회가 다양한 관습을 가지는 데 특히 몇몇은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사회적 중요성'

35) 김선욱, 『행복의 철학』, 60.

36) William K, Frankena, *Ethics,* 황경식 역,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3), 156-157.

37) William K, Frankena, *Ethics,* 158-159.

38) Fred, Feldman, *Introductory ethics,* 18-19.

www.kci.go.kr

이 도덕과 관련된다고 했다.[39] 스완은 우리가 사회적 중요도를 무시하고 이러한 관습을 어기거나 배제할 경우 사회의 예의에서 어긋나고 에티켓을 하나의 규범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회에서 도덕 규칙은 에티켓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했다.[40]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던 에티켓이 코로나19 이후 지금은 하나의 의무가 되었다.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고 동시에 윤리적 가치로부터도 멀어질 수 없다. 우리는 삶에서 비롯된 윤리적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가 초월자가 되지 않는 한 우리들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윤리적 삶에서 분리될 수 없다.[41]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며 상호교류를 통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위할 수도 있고, 서로가 정직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42]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완성: 공동체의 남은 과제

1) 재난 관리의 대응을 위한 노력과 과학자들의 연대 : 협력적 커버넌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재난관리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메르스와 사스를 경험한 우리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를 세워 팬데믹을 대응하는 정부 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바 있다. 과거 질병이나 바이러스를

39) John Hartlans Swan, *An Analysis of Morals* (London: Allen & Unwin, 1960), Fred, Feldman,『기초윤리학』, 18-19 재인용.

40) Fred, Feldman, *Introductory ethics,* 19.

41) Jacques P. Thirous, *Ethics: Theory & Practice* (California: Glencoe Publishing, 1980), 15.

42) James Rachels,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New York: McGrawHill, 1969), 178-179.

www.kci.go.kr

대응하는 수준이 K방역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다.

재난관리란 각종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 재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응급과 복구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말한다.[43] 하지만 21세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재난관리는 과거와는 달리 대형화 또는 구체적인 실행 등이 포함되어야 해서 많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정부와 민간의 협조, 비정부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재난 관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44] 정부와 민간의 협조는 더욱 중요하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 때 정부는 발 빠르게 민간 마스크 제작 공장을 찾아가서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마스크 5부제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스크 수급에 차질 없이 대처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의 연대이다. 현재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은 백신을 개발했다. 인류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낸 과학자들의 연대 속에서 피어난 결과물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45]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새로운 변종이 발생되어 과학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세계 최초로 두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가 확인되었다. 지난 2월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피발레

43) 송창영, 『재난안전 이론과 실무』 (서울: 예문사, 2013), 18-19.
44) 이영재 외 6인, 『재난관리론』 (서울: 생능출판사, 2015), 18-19.
45) 이창준, "K진단과 과학자들의 연대", 기초과학연구원 편집, 『코로나 사이언스』 (서울: 동아사이언스, 2020), 156-157.

www.kci.go.kr

대학 연구진 등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두 명을 관찰한 결과, 이들이 남아공과 브라질에서 발생된 변이 2종에 감염된 사실을 발표했다.[46]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과 그 기술을 주도하는 과학자들의 연대는 중요해 보인다.

또한 이 사회는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에 대한 각 분야 간의 조정과 협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47]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은 최악의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을 시작으로 여행사, 항공사 등 많은 대면접촉을 통한 경제적 상황은 마비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접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측불가능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과학 기술과 그 신기술로 인해 삶의 유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과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코로나 사태와 같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대한 전염성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이 발생될 때 현장이나 도시 등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난 대응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48]

무엇보다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이론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과거 재난 대책은 정부 주도하에서 행정과 공공 관리 등으로 맥락을 같이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서 수동적인 의미가 아닌 새로운 형태 즉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와

46) "브라질서 코로나19 변이 2종 동시 감염자 나와, 세계 첫 사례", 연합뉴스, 2021년 2월 2일자 기사.
47) 송윤석 외 4인,『재난관리론』(서울: 동화기술, 2009), 29
48) 유현정 외 3인,『재난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서울: 대영문화사, 2009), 73

www.kci.go.kr

협력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49]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팬데믹을 대처하는 방법은 재난관리의 종합적인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지 단체의 노력과 광범위한 대응이 하나로 일치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합재난관리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요청되어야 할 것은 재난 정보의 통합관리이다.[50]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민간의 협동 그리고 지방 자치의 호응과 협조는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바랬다. 이들이 하나로 힘을 합해 바이러스 공동 대응팀을 꾸려서 전염지역을 최소화 하거나 거리두기를 통해 전염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재난들이 생겨날 때 정부가 주도해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주도 아래 민간 기업과 자치단체 등 상호 협력적으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갔다. 하지만 이제 더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들이 존재한다. 여전히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사회와 교회의 연대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포스트 코로나의 미완성: 공동체의 연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예측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고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말하고 있다.

---

49) 이영재 외 6인, 『재난관리론』, 2015, 22.
50) 송창영, 『재난안전 이론과 실무』 (서울: 예문사, 2013), 22-23.

www.kci.go.kr

미국 감염병 연구에 권위자로 알려진 앤서니 파우치 소장(국립알레르기 · 전염병연구소, NIAID)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와 같이 정상으로 되돌아 갈 수 없으며 새로운 정상(뉴 노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통제하기 힘든 것이고, 보다 더 나은 백신이든 항체든 그 무엇이든지 지속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51] 그 와중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대형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뒤를 이어 노바백스와 얀센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예방 효과를 보이고 이제 일부 국가에서 접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에 내성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지속적인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 했다. 영국에 이어 남아공, 브라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 이들은 모두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우리는 코로나19와 총성 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벌여야 할지 예측할 수 없다.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인류 공동체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까지 안고 가야할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총성 없는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신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끝이 없어 보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도덕 공동체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일부 개인주의적 이탈 행위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피해를 목

51) "미국 감염병 권위자, 코로나19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서울신문, 2021년 1월 28일자 기사.

52)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할 것. 새로운 백신 계속 개발해야", 동아사이언스, 2020년 2월 2일자 기사.

www.kci.go.kr

격했다. 팬데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탈을 줄이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기적인 이탈보다는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그 어느 시대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을 위해 시민들과 개개인들이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목표로 한다. 개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자유주의와는 달리 공동체주의는 구성원들이 정치 공동체 운명을 같이하고 나와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와의 도덕적 연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를 공동장소에 함께 거주하고 상호 부정의를 막기 위한 결사체 그 이상으로 보았다.[53] 그는 공동체의 덕이 습관적 행위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생길 때만 진실(참)을 말하는 사람은 덕스럽지 못한 것이고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에서 확고하고 변함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한다고 했다.[54]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에서의 덕은 습관적 행위의 결과에서 비롯된 성품이며 선의와 공정, 친절과 양심 등 도덕적 삶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55] 그가 말한 '습관적'이라는 함의는 공동체에서 늘 함께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익숙하게 하는 행위 즉 나와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변함없이 '습관처럼'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덕스러운 삶을 말한다.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매킨 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현대 사회

53) M.Sandel, *Liberalism and the Unencumbered Self,* 김선욱 · 구영모 외 4인 역,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37-41.

54) James Rachels,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New York: Mc Graw Hill, 2007), 175.

55) Louis P. Poiman · Fieser, *Ethics,* 285-286.

www.kci.go.kr

가 위기에 처한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된 덕의 윤리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에서 덕의 윤리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56] 그는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성질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는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덕의 상실은 그러한 선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성질이라고 보았다.[57] 매킨 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의 계승을 강조하고, 덕을 소유한 구성원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추구하는 목적을 잘 구현해 가는 시민이라고 보았다. 덕을 갖춘 구성원들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말한다.[58] 매킨 타이어는 개인이 자신의 삶과 목적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관심을 더 갖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은 고대 폴리스에 사는 사람들처럼 공동체를 기반으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다.[59] 물론 공동체주의자들도 풀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선과 공동체의 선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공동선은 각 개인들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 조건에서 타협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기적인 개인으로서의 행동은 피해야 하고 공동선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60]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

56) 김지현 · 손철성, "세계 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시대와철학」20-2(2009), 104.
57)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덕의 상실』(서울: 문예출판사, 19997), 282.
58) 김지현 · 손철성, "세계 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104.
59) 김지현 · 손철성, "세계 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105.
60) 김동수, "현대공동체주의의 사상적 기초."「한국정치학회보」26-3(1993), 16-17.

www.kci.go.kr

이 수단적 합리성에 의해 적절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선택될 경우, 그나마 그 수단은 합리적일 수 있겠다. 하지만 선택의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가 공동체의 목표와 다를 경우,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할 경우가 발생된다. 자신의 이익과 목표의 극대화가 도덕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면 그 합리성은 비합리적인 것이 되고, 결국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61] 지난 코로나 발생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여로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방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희생정신은 그 무엇보다 큰 의미를 던져주었다. 시민들의 협동정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빛났다. 앞으로도 팬데믹 사회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재난을 이겨내는 연대의 정신과 매뉴얼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공공선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안위는 배제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그릇된 이기심에 대한 성찰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염병이 도사리는 사회에서 개인의 이탈은 대단히 위험하다.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빚어지는 문제와는 달리, 팬데믹과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의 경우 한 사람의 이탈이나 그릇된 이기주의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선에 부합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적받는 교회와 종교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일부 종교 및 선교 단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했다. 이에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일부 개신교 연합기관과 단체들은 교회가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현실을 직시하고 사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찰의

61) 노영란, 『도덕성의 합리적 이해』(서울: 철학과현실사, 2002), 181-182.

www.kci.go.kr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의 이기주의를 넘어 집단이기주의에서 발생되는 염려들이다. '님비(NIMBY) 현상', "내 뒷마당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집단이기주의는 자칫 공동체의 평화를 깨드릴 수 있다. 일부 종교시설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진 사태에서 보듯이, 소규모 공동체(집단)의 이탈은 팬데믹 사회에서 더욱 위험하다. 우리는 님비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나 지역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시설이 들어올 경우, 우리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집단이기적인 행동과 달리, 팬데믹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단 이기주의는 공동체 전체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는 사회의 구성원이고 사회 안에서 교회가 존재한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소중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이 성경 구절에는 이웃의 아픔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레비나스가 주장했던 타자의 윤리와 연결된다. 이웃의 연약한 얼굴은 나의 슬픔이라고 말한 예수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예수는 우리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타자의 얼굴에 비치는 궁핍함을 보라고 말한다. 지금 교회는 '네 이웃의 얼굴'을 다시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IV. 나가는 말

지구촌 사람들은 유래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대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스템의 변화이다. 그렇지 않아도 비대면이 익숙한 사회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 사회구조가 점점 가시화 되고,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타자와의 대면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세

www.kci.go.kr

시대에 페스트와는 달리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줄여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페스트로 인해 바이러스를 대응하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는 충분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 공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의 창궐로 인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요청되는 몇 가지 윤리적 교훈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위한 배려와 보살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확진된다. 이에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한 방역 준수에 만반을 갖춰야 한다. 만약 코로나 방역이 무너지면 또 다시 비대면 거리두기는 강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는 이웃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자, 곧 네 이웃의 나약한 얼굴을 생각하고 그릇된 이기주의에 벗어나 방역 준수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타인의 얼굴에 비춰지는 나약함은 나의 책임을 요구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는 스스럼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이러스의 전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공동선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선을 위한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덕스러운 행동을 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공동선을 위한 타자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과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우리는 개인의 그릇

www.kci.go.kr

된 이기주의를 벗어 던져야 한다.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잘못된 이기주의, 야만적인 개별성이나 이기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공공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아직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함께 배려하고 공공선을 위해 이기심을 버리고 타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반드시 코로나19의 끝은 온다"는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Hartlans Swan, John. *An Analysis of Morals.* London: Allen & Unwin, 1960.

Henry R. West/김성호 역,『밀의 공리주의 입문』. 서울: 서광사, 2015.

Feldman, Fred/ 박은진 · 장동익 역,『기초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Frankena, William/ 황경식 역,『윤리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Jacques P. Thirous, *Ethics: Theory & Practice.* California: Glencoe Publishing, 1980.

Levinas, Emmanuel.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8.

_____. / 김동규 역,『윤리와 무한(필립 네모와의 대화)』. 서울: 에라스무스 총서, 2020.

_____. / 서동욱 역,『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11.

MacIntyre, Alasdair/이진우 역,『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J. S. Mill, *Utilitarianism.* ed., Roger Cris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ojman, Louis P & Fieser, J/ 박찬구 외 3인 역,『윤리학』. 서울: 울력출판사, 2011.

Rachels, James.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New York: McGrawHill, 1969.

Sandel, Michael/ 김선욱 · 구영모 외 4인 역,『공동체주의와 공공성』.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강영안.『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고규경 외 16인.『코로나 사이언스』. 서울: 동아시아, 2020.

김동수. "현대공동체주의의 사상적 기초."「한국정치학회보」26-3(1993), 7-21.

김명자.『팬데믹과 문명』. 서울: 도서출판 까치, 2020.

김선욱.『행복의 철학』. 서울: 도서출판 길, 2011.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과 탈현대윤리학."「철학논총」, 23(2001), 33-51.

김지현 · 손철성. "세계 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시대와철학」, 20-2

www.kci.go.kr

(2009), 93-126.
노영란.『도덕성의 합리적 이해』.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2.
박원빈.『레비나스와 기독교』. 서울: 북코리아, 2010.
박치완.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적 해석이 가능한가?.”「범한철학」, 64(2012), 163-197.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 모험’에 대한 연구.”「기독교사회윤리」, 33(2015), 177-201.
_____.『틸리히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대화』. 서울: 한들출판사, 2018.
송윤석 외 4인.『재난관리론』. 서울: 동화기술, 2009.
송창영.『재난안전 이론과 실무』. 서울: 예문사, 2013.
유현정 외 3인.『재난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 서울: 대영문화사, 2009.
이창준. “K진단과 과학자들의 연대”, 기초과학연구원 편집,『코로나 사이언스』. 서울: 동아시아, 2020.
이영재 외 6인.『재난관리론』. 서울: 생능출판사, 2015.
이경상.『코로나 이후의 미래』. 서울: 중원문화, 2020.
기초과학연구원 편집.『코로나 사이언스』. 서울: 동아시아, 2020.
“마스크 5부제 1주일간 1천913만명 공적 마스크 구매”. 연합뉴스. 2020년 3월 16일자 기사.
“코로나 백신접종 이달 중순 본격화, 고령층 AZ백신 접종할 듯”. 연합뉴스. 2021년 2월 2일자 기사.
“서울서 도주한 음성소망병원 확진자 청주서 붙잡혀”. 연합뉴스. 2020년 12월 20일자 기사.
“코로나1년,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폐업”. 뉴스 1. 2021년 1월 18일자 기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 새로운 백신 계속 개발해야”. 동아사이언스. 2020년 2월 2일자 기사.
“미국 감염병 권위자, 코로나19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서울신문, 2021년 1월 28일자 기사.
“브라질서 코로나19 변이 2종 동시 감염자 나와, 세계 첫 사례”. 연합뉴스. 2021년 2월 2일자 기사.

www.kci.go.kr

논문투고일: 2021년 02월 25일
심사개시일: 2021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22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포스트 코로나(past corona)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의 의무를 중요시 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집단감염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개인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했다. 다행히 우리 사회는 시민들의 협조와 공동체 의식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기주의로 인해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의무감이나 당위에 따른 행위 보다는 타자에 대한 배려의 윤리가 필요하다. 타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코로나19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이겨내기 위해 공공선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 질서를 위한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 남들의 시선이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공동선을 위한 타자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과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릇된 이기적 행동에 대한 비판과 성찰 그리고 공동체의 덕윤리와 타자의 윤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주제어: 코로나 19, 포스트코로나, 이기주의, 공동선, 공동체 윤리, 배려의 윤리

www.kci.go.kr